

구매나 조리가 어려운 어린 자녀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시설 및 학교 급식관리를 비롯하여 가족의 영양관리를 사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.

【P1-18】

농촌거주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식행동과 건강행동의 비교

정금주¹ · 조영숙 · 이승교

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,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농촌지역은 건강과 식생활의 자연친화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농약사용과 과도한 노동 부하와 함께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종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다. 이에 따라 농촌에서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식품의 생산과 식행동 및 건강관리 행동에 차이를 알아보고 농업종사자의 나은 건강생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 농촌을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추출법으로 1870명을 선발하였다. 조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으로, 시군단위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통하여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게 하였으며 조사원이 질문에 답을 듣고 기입하게 하였다. 식품생산과 식행동 및 건강행동을 유형별로 모아 점수화하였으며 점수화된 결과를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였다. 전체항목에 대하여 빈도와 %를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χ^2 값을 구하였고 점수화된 결과는 F-값을 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. 대상자의 분포는 농업인이 1326명이었고 비농업인은 544명이었으며, 식구수는 평균 3명이었고, 남편의 나이는 농업인 64세 비농업인 67세 이었으며 부인의 나이는 58세로 같았다. 교육수준은 교육연한으로 볼 때 농업인은 13.6년이었으며 비농업인은 18.7년이었다. 부인의 가계수입 참여율은 농가가 훨씬 높아서 87%에 이르렀으나 비농가는 30%에 불과하였다. 아침식사는 농가 95%, 비농가 83%로 먹고 있었으며 주로 한식이었다. 반찬 수는 3~4종이 가장 많고(농가 60% 비농 56%), 인스턴트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가구는 농가 66% 비농가 62%를 보여 아직 농촌에서는 간편식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들 요인을 모아 점수화하여 비교한 식습관점수는 12점을 최우수로 볼 때 농가 8.4점과 비농 7.8점으로서 농가가 더 우수하였다. 가정 소비 식품의 생산을 비교하면 농가가 월등히 우수하여 콩나물 배추 무 깨 등 일반식품은 생산하여 먹고 있었으며, 된장 간장 장아찌 등 전통의 저장식품 만들어 활용(전체 12점 중 농가 11점 비농 7점)하고 있었다. 그러나 집에서 가공저장할 수 있는 짬뽕조림 등에서는 전체 12점 중 1점으로 거의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김장량은 평균 51포기 비농가는 33포기를 담고 있었다. 농촌에 거주하여도 비농가에서는 김장을 담지 않은 가정이 18%나 되었다. 건강관리행동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전체적으로 일년에 한두번씩 검진을 받는 가정이 44%이었지만 전혀 검진을 받지 않는 가정이 30.4%나 되었다 이를 연 1~2회 받는 경우 10점으로 전혀 받지 않으면 0점으로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농업인 5점 비농업인 4.3점으로서 3~4년에 한번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농업인에서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보였다. 목욕시설과 목욕빈도를 점수화하여 온냉시설이 있을 때 4점 및 매일 목욕할 때 4점으로 하여 부인과 합산한 12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볼 때 비농이 더 우수하여 8.3점이었고 농업인은 7.2점이었으며, 농업인의 음주습관을 보면 남편이 매일 음주(17%)와 안마시는(30%) 빈도가 비농(매일 9% 안마십 21%)보다 높아 음주습관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체 흡연인구도 농촌주민의 48%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농가가 비농보다 더 많이 흡연하였다. 그러므로 농촌주민의 전반적인 식습관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흡연과 음주에서 문제점이 보여 건강행동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였다.

【P1-19】

신체지수 및 스트레스의 안면 피부유형간 비교

류화라¹ · 박영숙

승원대학 자연요법과,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

본 연구는 건강피부를 유지,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견상 건강하고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131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안면 피부유형별 신체지수 및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. 피부유형은 전체안면 피부 유분량